

광주는 교육, 전남은 농업 종사자 최다

통계청 을 상반기 고용 조사

월 200만원 이하 3명중 1명 상용근로자 비중 조금씩 늘어

올 상반기 취업자 중 월급이 200만원 이하인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3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 200만원 이하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보다 4.3%포인트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가 3년 6개월째 이어졌다. 광주지역은 교육서비스업, 전남은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

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취업자 2천30만1천명 중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7%, 100~200만원 미만이 24.3%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0.1%포인트, 100~200만원 미만은 4.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00~300만원 미만은 31.0%로 지난해 대비 1.9%포인트, 300~400만원 미만은 16.9%로 1.1%포인트, 400만원 이상은 18.0%로 1.2%포인트 늘어났다.

저소득 구간 비중은 줄고 중위소득 이상은 늘어나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향상됐다.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고 200만원 이상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는 2016년 상반기 이후 3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급여 수준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의 71.9%가 월평균 20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서비스종사자는 71.8%, 판매종사자 45.1%도 한 달간 200만원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대분류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월평균 200만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이 66.8%로 가장 많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6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3.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2.6%)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지역 취업자 34만5천명 중 교육서비스

업 종사자가 7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 5만6천명, 소매업 5만5천명, 보건업 5만2천명, 사회복지서비스업 4만6천명으로 전체적으로 서비스직종이 취업자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서울, 부산, 인천은 소매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울산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가장 높았다. 대구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컸다.

전남 취업자 총 96만8천명 중 17만4천명이 농업에 종사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만2천명, 음식점 및 주점업 7만2천명, 소매업이 6만5천명, 사회복지서비스업이 5만3천명 순이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할로윈 디저트' 프로모션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25일부터 31일까지 모래시계 레스토랑과 디오니소스 카페&바에서 할로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디저트를 선보인다.

디오니소스 카페&바는 거미줄, 마녀 모자, 호박 등 다양한 할로윈 소품으로 데커레이션 할 뿐만 아니라 잭 스퀴린턴 마카롱, 드라큘라 쿠키, 마녀 손가락 쿠키, 스푸키 스파이더 쿠키, 스캐어리 머핀, 단호박 몬스터 케이크 등 으스스하면서도 달콤한 할로윈 디저트를 한정 수량 선보인다.

또, 모래시계 레스토랑에서는 해당 기간 디너 뷔페에 방문하는 성인과 어린이 고객 모두를 위해 할로윈 스페셜 디저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식음료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도 할로윈 분위기를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호텔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한 프로모션"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나 예약은 홈페이지(higwangju.com)에서 가능하다.

도철기기자 dools18309@srb.co.kr

광주 中企조합 지원조례 제정

시의회 본회의 통과

광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추진과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제정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운성)에 따르면 22일 광주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지난 7일 정무장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충청북도, 경상북도, 부산시, 전남도에 이어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다섯번째로 지방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현재 광주시에는 광주전남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총 30개 협동조합 및 2천200여개의 조합원사가 있다. 이들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중소·소상공인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3년 마다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사업 지원 및 판로 확대 노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조례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광주시 및 소관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시 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해 판로 확대를 도울 수 있도록 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가을산에 제격 이마트는 오는 11월 1일까지 등산복과 등산용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가을 아웃도어 페스티벌 '등산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레드페이스 라이트그리드 구스다운재킷'과 '빅텐 경량다운 재킷', '블랙야크 장갑', '3단 등산스틱' 등 필수 등산용품을 행사카드 구매 시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 제공

전남 여성 평균 기대 수명 '85.6세'

20대 성비 불균형 심각 남녀 고용률 격차 17.5%

지난 2017년 전남지역에서 태어난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5.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 목포사무소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전남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7년 전남 지역 여성 기대수명은 85.6년으로 지난 2005년보다 4.0년 증가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45년에는 89.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해 기준 전남 지역 남성 기대수명은 여성보다 7.2년 적은 78.4년으로 2045년에는 84.6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올 전남지역 총인구 177만2천명 중 여성 인

구는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8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7%를 차지했다. 남녀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101.4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지만, 20대에서는 140.5명으로 나타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전남지역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30.0세, 평균 재혼연령은 44.9세였다.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33.4세)에 비해 3.4세 낮았다. 여성 초혼연령은 1990년 24.1세에서 2018년 30.0세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13세 이상 여성의 68.4%

이상이 결혼식 문화를 과도한 편으로 인식했으며,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여성은 49.4%였다.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여성의 비율은 30.1%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지역 여성 고용률은 53.8%로 2017년 대비 0.2%p 증가했지만 남성 고용률(71.3%)에 비해 낮았다.

남녀 고용률 차이는 지난 2005년 20.4%p에서 지난해 17.5%까지 격차가 줄었다. 실업률은 2.5%로 2017년도보다 0.4% 감소했다. 남성 실업률(3.0%)보다 0.5%p 낮은 수준이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전남농협 제9회 전국농민대회에서 전남농협은 '지역 아동 환아복지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전남 원예농산물 1천억원 구매 약정

전남 농협-농협경제지주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22일 나주국제농업박람회장에서 농협계통마트는 물론 이마트, 롯데마트 등 계통 외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협경제지주와 전남원예농산물 1천억원 구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과 이철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박하원 전남농협 경제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어 함께한 전남 관내 연합사업조직 대표와 마케팅 담당자들은 농협경제지주 바이어와 전

남 원예농산물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전남농협은 이번 약정체결을 통하여 우수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구매를 희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농협과 농가간 계약재배로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석기 본부장은 "농민은 안정적인 판매로,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약정 체결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도철기기자 dools18309@srb.co.kr



광주은행은 지난 21일 광주기독병원에서 '지역 아동 환아복지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광주기독병원 어린이병동에 환아복

1천만원 상당 600벌 후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21일 광주기독병원에서 '지역 아동 환아복지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최용수 광주기독병원장, 김은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아 지원 캠페인 '하루'를 통해 이번 '지역 아동 환아복지 지원'에 동참했다. '하루'는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아이들에게 예쁜

그림으로 디자인한 환아복을 지원해주는 캠페인으로 광주은행은 이번 전달식에서 광주기독병원 어린이병동에 1천만원 상당의 환아복 600벌을 후원했다. 지난날 3일 전남대학교병원, 지난 2일 조선대학교병원의 어린이병동에 이어 이번 광주기독병원 어린이병동에도 환아복을 후원함으로써 총 3천만원 상당의 환아복 1천800벌을 후원하게 됐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우리지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ता2000@srb.co.kr

'항공권+여행자보험 가입'

제주항공 서비스 시작

제주항공은 국제선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추가 선택사항으로 여행자보험도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22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하는 사전 주문 기내식이나 좌석 지정 등의 부가서비스와 같이 여행자가 원하면 보험 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고객은 왕복 여행 일정을 입력한 후 부가서비스 선택 단계에서 '여행보험'을 선택하고 항공권 운임과 함께 결제하면 된다.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여행자 보험은 ▲해외여행 중 생리상해와 질병에 대한 의료비 ▲휴대품 손해 ▲여권분실 후 재발급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등 일반 해외여행자보험 상품과 비슷하며, 가입자는 보장 내용에 따라 실속형과 표준형, 고급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한국을 출발하는 국제선 왕복 노선을 예매해야만 가능하며, 국내선이나 해외에서 출발하는 여정일 때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여행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항공권과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페어 패밀리(Fare Family)'라는 운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